

투데이 칼럼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현황에 깊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북한 인권 실태는 전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이 자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교섭을 앞두고 성직자를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다. 정치범 수용소 중에 있는 제9관리소 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잡혀 있다. 이들은 옷조차 주어지지 않아 일복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극심한 종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택하고 있다. 북한에는 '성화당'이라는 연극이 있다. 사람들이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북한에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압을 받고 있을뿐이다. 그밖에 북한에서는 거주 이점뿐만 아니라 여행도 허가를 얻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인권이 탈탈탈 나가기 바로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현재 총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수감자는 15만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선봉제공구'으로 분류돼 최대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함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에서는 최소 노동 연령이 '만 6세'이다.

이곳에서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 강제노동은 심각한 폭행과 감시에 의해 이뤄진다. 하루 10시간 노동에 연간 휴일은 고작 '1.1일'이다.

현재 북한 내 감옥은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정치범수용소 1만5천 명,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정치범수용소 5만 명,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정치범수용소 1만 명, 평안남도 북강군 18호 정치범수용소 5만 명,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정치범수용소 5만 명, 함경북도 청진시 25호 정치범수용소 5천 명 등이다.

그밖에 북한 흉남 수용소의 경우 극심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감옥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한다. 일몰이후 하루에 140개의

살까마니에 퍼 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을 시킨다.

식량 배급은 하루에 작은 밥공기 두 그릇 그리고 무척이 든 스oup이 전부다. 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든다. 죄수의 절반이 일 년 안에 죽어났다고 전해진다. 공장에서 생산한 일몰이아 포대는 소련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수에 노출돼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의 인바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각종 형태의 감염 방지에 최소한의 요건이다. 수감자들은 정제수, 콜레라, 이질 같은 불결한 환경에서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병, 괴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밤에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죽어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에 끌려간 수감자 10명 중 3명 정도는 급격한 실사나 영양실조에도 약한 번 못하고 죽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안전성 산하 수용소에 있는 진로소가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의복 등도 갖추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2020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권 문제부터 미국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나온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구금, 고문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 등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결 짓겠다는 답변을 했다.

독자재언

어린이 통학버스 짙은 섀딩은 이제 그만

여름철이 되면서 통학 차량에 어린이가 간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폐된 차량에 방치되었다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어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몇 년 전 타 지역에서는 버스 기사가 아이들이 배린 뒤 세차까지 했지만 짙은 섀딩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자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어른들의 부주의와 함께 차량의 과도한 섀딩이 문제화되었다.

이것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힘든 짙은 섀딩은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 안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카시트 설치 의무화 등 다른 안전 수칙의 위반을 감추기까지 해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년

10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70% 미만일시 운행자 또는 운행하게 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다. 더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투과율이 70%를 유지하도록 하며 미처 확인하지 못해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스스로가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두드려 지나가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여 어린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이정우고창서교통관리계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시카고 강에 오리 7만개. "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시카고 강에 고무로 된 노란 오리 인형들이 떠 있다. 일리노이주 스페셜 올림픽 기념 마련을 위한 '2021 시카고 더키 데이'가 열려 7만 개의 오리 인형이 시카고 강으로 쏟아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오리 인형을 일양해 강에서 경주를 시작해 끝인 지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오리 인형 입양자가 상금 등을 받는다.

사설

운전석 없는 자율협력 주행 시대

국내 최초로 롯데정보통신이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 자동차는 좌석 4명, 입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셔틀이 상용화되면 교통 약자를 위한 운송수단, 택배·우편 등 자율주행 물류, 공원·캠퍼스 산업단지 내 운송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이에 앞서 KT는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이 버스에 5G 차량시물통신(V2X)을 기반으로 신호등, 지능형 CCTV, 보행자검지기 등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영을 시연한 바 있다.

이날 시연에서는 일반 차량과 혼재된 상태에서의 자율주행, 정류장 정밀정차, 버스외 인프라인 등 통신, 승하차 예약 알림 등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율협력주행은 현재 서울, 제

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율협력주행은 자동차끼리, 그리고 주변 환경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앞차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차가 속도를 줄인다. 고속도로에선 속도 조절뿐 아니라 차량 스스로 길에 찾고 차선도 바뀌며 달린다.

운전자는 주변을 살피고 돌발상황에만 대비하면 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모두 5단계다. 1~3단계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필수인 부분적 자율주행에 머물렀다.

4~5단계부터는 통신기술을 더해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환경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완전한 자율 '협력' 주행을 한다.

통신망을 해킹해 남의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그래도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성큼 들어와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 선도에 노력하기 바란다.

전주시내 쓰레기 실태

전주 시내 주요 도심 공원 등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항상 넘쳐 있다. 공원의 경우 마땅히 버릴 만한 쓰레기통 하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야간 이용객들의 불법 투기도 여전하다. 쾌적해야 할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늘고 있다.

찾는 사람이 늘면서 쓰레기 분량도 늘고 있다. 공원 화장실에도 쓰레기가 넘쳐난다.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것도 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4월부터 전주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두 달간 음식물 혼합 투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73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

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8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이 있다.

현장에서 포착된 불법투기 유형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많이 적발된 곳은 중화산동 산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새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유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이다.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